

다운제품의 선택과 취급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김한수

겨울제품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다운제품은 단순한 방한용 및 보온성 의류뿐만 아니라 주기생활에 필요한 이불, 베개 등의 침구류로 소비패턴이 변모하고 있다.

이러한 다운제품은 다른 섬유제품과 달리 불량품 발생이 많아 소비자의 불만을 쉽게 살 수 있는 제품으로 불량유형에 따라 예방조치를 철저히 하여야만 소비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품질과 내구성이 우수한 다운제품을 선택하는 요령을 살펴보기로 하자.

가볍고 추운 곳에서는 많이 부풀어 오르는 제품을 선택

제품의 내부에 부착된 라벨 중 충전세 량을 확인한다.

왜냐하면, 기위털이 오리털보다 품질이 우수하며 솜털함량이 높을수록 보온성과 착용감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만저보아시 쪽감이 매끄럽고 부드러운 솜을 만지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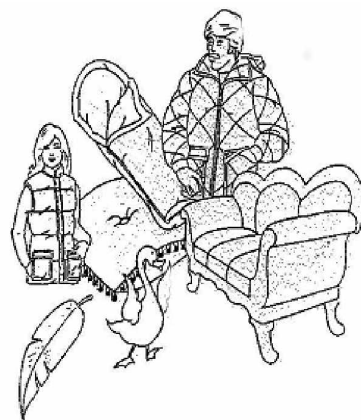
왜냐하면, 깃털이 많을수록 깃털의 크기가 클수록 쪽감이 부드러워지며 착용 시 불쾌감을 초

래하기 때문이다.

제품의 무게가 가벼울수록 좋다.

왜냐하면, 닭털 또는 깃털 등을 잘게 썰어 (Crushed Feather) 혼합하는 솜일수록 쓰는 경우도 있어 소비자를 모시는 식별이 어렵다. 닭털,

깃털 자체는 감촉이 부서부서하고 탄력이 없으며 딱딱한 느낌을 주는데 상대적으로 부기우면 닭털등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실내온도가 높은 데도 불구하고 제품이 부풀어 있으면 그 제품이 좋지 못하며 상대적으로 내부온도가 낮은데도 부풀어 있으면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다운은 특성상 온도가 내려가면 부풀어 공기를 많이 함유하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움츠러 들어 공기를 방출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바느질은 되도록 적고 심플한 스타일의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표면에 바느질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운 등이 새어나올 확률이 높으며 물 등이 스며드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제품에 사용된 원단은 천연소재가 좋다.

왜냐하면, 다운은 천연산 원료이므로 흡수성, 촉감 등이 우수한 면 100%, 견 100% 원단이 최적의 소재이다.

솜털 80% 이상에 깃털 20% 이하의 충전물으로써 복원력을 강화시킨 것이 좋다.

왜냐하면, 다운제품은 100%의 솜털솜이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깃털을 혼합하여 사용하는데 이는 탄력(복원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30% 이상 혼합되면 누를 때 감촉이 부서부서하고 털의 심(芯)이 느껴지게 되며 이 심이 원단을 뚫고 털이 새어 나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원단 오염은 세제 잔류 및, 통풍으로 냄새제거

다운제품에서 소비자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유형은 「세탁 후 원단이 노랗게 오염되는 경우」 「털이 원단 밖으로 새어 나오는 경우」 「제품에서 냄새가 나는 경우」 「제품의 별키성(부피)이 낮아지는 경우」 등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취급하면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다.

세탁 후 얼룩오염 현상 발생은 원단이 수지 코팅 가공된 제품에서 주로 발생한다

왜냐하면 걸감이면에 코팅처리로 물과 공기가 거의 통하지 않아 세탁 시 사용되는 물과 세제가 다운과 결합하여 발생하는 친수성 물질 등이 행균과 탈수과정에서 걸감에 잔류하여 건조하면서 서

서히 나타난다

이와 같은 현상은 걸감 원단이 흰색, 아이보리, 회색, 핑크 등 주로 선미색에서 나타나며 봉제선 주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오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 30℃ 온도의 물과 중성세제를 표준량 사용하여 세탁을 하되 행균은 여러 번 탈수도 연속 2~3회 실시하여 최대한 수분을 제거한 후 건조시간을 단축하여야만 예방이 가능하다.

제품에서 다운이 새어나오는 현상은 원단에서 새어나오는 경우와 봉제선(바늘구멍)으로 새어나오는 경우가 있다.

다운제품에는 털이 새어나오지 않도록 고밀도 원단을 다운푸르프 가공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밀도가 낮거나 다운푸르프 가공이 미흡하면 원단을 통하여 새어나오게 된다.

그러나 솜털이나 깃털의 구조상 또는 직물의 조직 회복력 때문에 거의 새지 않아야 되는데도 연속적으로 새어나오는 이유는 솜털 등이 제품안에서 여러형태의 다운과 엉켜있어 작은 깃털 등이 나올 때 체인으로 맞물려 계속적으로 새어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올라기나 솜털 등이 불연속적으로 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이와 같은 다운푸르프 직물도 존재하지 않는다.

봉제선으로 새어나오는 경우는 다운제품 작업에서 볼 포인트 9호 바늘과 적정 개봉사를 사용하여 다운이 새는 현상을 예방할 수 있다.

제품 안에 충전된 다운에서 깃털의 함유율이 높으면 깃털의 깃대에 직물의 공극을 자극하여 넓어진 공극을 통하여 다운이 새어 나오게 된다.

다운제품에서 다운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는 원인은 대개 제품에 사용된 다운의 잘못 때문이다.

오리나 거위에서 채취된 다운은 일정한 가공공



정을 거치는데 가공 시 적절한 약품의 미사용과 가공시간 단축 등으로 다운 내 잔류 유지분이 높으면 다운 특유의 냄새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제탁 후 건조시간이 길어지면 다운의 수분 과다함유로 건조기간 동안 다운특유의 냄새가 강하게 발생된다.

이외 같이 냄새가 나는 경우 통풍이 양호한 그늘진 곳이나 햇볕에 의할 경우 변색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품을 뒤집어서 2~3시간 건조하면 냄새가 어느 정도 사라지게 된다.

제품에서 벌키성(무피)가 낮은 현상은 기위나 오리의 종류와 사용지에 따라 달라진다.

물에서 사는 새 즉, 수조류의 종류(오리, 기위)에 따라 벌키성이 차이가 많이 발생하며, 야생 종류일수록 솜털이 발달하여 보온성과 벌키성이 우수하며 기위털이 오리털보다 솜털의 크기가 1~1.5배 커 공기함유량이 많아 우수하다. 따뜻한 지역에서 사용된 다운의 추운 곳에서 사용된 다운보다 상대적으로 벌키성이 떨어진다.

제품에 한만 이상 사용된 적이 있는 중고다운을 사용하여 만든 제품은 제탁이나 드라이클리닝 설

비로 유지분이 거의 없어 솜털이 손상되어 다량의 오라기(화이버)와 손상 깃털이 존재하여 벌키성을 낮게 만든다.

상식적인 사항이지만 솜털의 혼합비율이 높을수록 벌키성이 우수하며 오라기(화이버)가 많을수록 벌키성은 떨어지며 특히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되면 더욱 낮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보관 시 무거운 물건을 얹어놓거나 습기가 높은 곳은 피하고 통풍이 양호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그래도 벌키성이 살아나지 않으면 제품을 햇볕 또는 헤어드라이기를 사용하여 수분을 어느 정도 제거하면 벌키성은 급격히 상승하지만 일정시간 지나면 다시 안정된다.

우리나라는 다운제품의 역사가 짧아 취급방법 및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으나 상기의 내용을 숙지하여 사용한다면 관련제품의 내구성은 크게 향상되며, 관련업체 또한 취급상의 주의사항 외에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소재와 디자인의 개발 등 노력을 통하여 다운제품 품질향상과 대중화를 위하여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표준**